

중추 전문 사육농장

廣州郡

삼정농원을 찾아

〈취재부〉

「三正農苑」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광주읍내에서 용인으로 가는 길은 비개인 아침의 화단처럼 말끔히 단장되어 있다. 도시생활인이라면 누구나 가끔 이런 교외로 빠져나와 마음껏 날개를 펴고서 달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길을 따라 5km쯤 달리다 보면 오포면이 나오고 왼편 산지쪽으로 양벌리마을이 보인다. 마을어구를 들어서면 양돈장과 양계장이 몇 군데 눈에 띄는데 마을의 좌우 뒷편은 첩첩 산으로 연하여 있고 뒷산 중턱에는 「極樂寺」라는 절이 있다.

광주군 일대에는 약 150만수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는데 광주읍에 10만, 집단사육지 선린촌에 20만, 초월면에 30만, 오포면에 15만, 도척면에 10만, 실촌면에 25만, 기타 등이다. 이에 비해 육계는 산란계의 20%선을 지속해 오다가 지금은 작년말의 육계과동으로 인해 많은 수가 도산 또는 감축되어 5~10%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란계 주사육 품종은 바브콕, 마니나, 하이라인, 데칼브와렌, 셰이버 등이며 중추사육농장은 삼정농원 외에 1만~1만5천수 규모로 경기도지역에 3, 4 곳이 있다.

P사료 광주대리점姜부소장과 기자 일행이 도착한 것은 2월 16일 11시 세잎의 클로버 마크와 함께 「三正農苑」의 상호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잠시 긴장된 순간을 맞고 있었다. 〈방역상 출입을 금함〉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찾아와 혹시나 난처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그러나 도착을 알리자마자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오형사장.

정확히 70일만에 출하

산란계 중추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삼정농원」은 대지 1,800평에 건평 500평의 규모로 세워졌다. 현재 평균 20,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주 또는 2주 간격으로 4,000수씩 입추와 출하를 한다.

사육방법은 처음 14일(2주)간은 평사에서 육추시키는데 이때에는 특히 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음 4주간은 초생추 cage에서 사육을 하며 출하시까지의 4주간은 빠다리식 4단 중추케이지에 넣어 사육하는데 맨 아랫단은 온도관리상 비워두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정확히 70일이 경과되면 다른 농장으로 실려가게 되는데 이때 사양프로그램도 함께 이양된다.

그런데 이농장에서는 수송도중의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출하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비타민 등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있다.

능력급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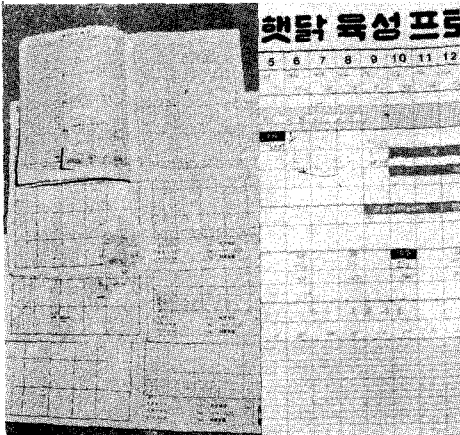
‘효율적인 사육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농장에 알맞는 사양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것을 정확히 실행하는 관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중을 체크하여 기준체중에 도달하고 있는가 또는 각 계군간에 고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오형 사장

이를 위해 그는 4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특히 능력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계사마다 사양기록부를 비치해 놓고 계사별로 관리인들이 분담하여 닭의 체중, 계사온도, 사료급여량, 백신접종, 점등계획 등을 일일이 체크하고 관리하며 사양 및 방역프로그램을 철저히 지킨다. 이 결과 나타난 성적을 토대로 급여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관리인중에는 10여년을 함께 일해오고 있는 사람도 2명이나 있단다.

질병없는 계사

항상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프로그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계사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물청소와 완전소독이 가능하다. 매주 2회씩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일단 사육되어 출하시킨 계사는 다소의 생산성이 줄어든다 해도 전염병 방지를 위해 소독후 2주 동안 비워둔다. 백신도 주령별로 뉴캐슬병, 계두, 뇌척수염, EDS 등을 접종하는 한편 각종 세균의 구충에도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않는

▷ 사양기록부를 비치해 놓고 있다. 능력급제도를 도입, 각 계사마다



◀ 계사앞에 선 이오형 사장

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전염병이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가 농장을 들어섰을 때 마당에는 포대더미가 높다랗게 쌓 있었는데 이것은 위생과 수송의 편의를 위해 계분을 건조 야적시키는 것이다.

계열화-주문생산-계획입추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추사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계업도 분업형태로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양계협회라든가 몇몇 인사, 잡지 등에서 계열화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읍니다만 아직은 참여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계열화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열변을 토하는 이 사장 그는 말을 잇는다.

‘전문사육형태로 전환될 경우 일반농장에서 별도의 육추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산란성적도 10%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문생산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주문자가 희망하는 품종과 수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계획입추에 의한 물량조절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료의 선택이 중요

각 사료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사료의 선택은 양계업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것은 사료비가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사장의 한마디

‘모든 질병은 사료에 원인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사료는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사료의 경우(작년부터 사용) 현금거래에다가 할인제를 허용치 않는 불리점으로 인하여 사양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나, 사료 자체로 볼 때는 다른 어느 사료보다도 품질이 선진화되어 있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70일추 출하시까지 타 사료에 비해 30g 이상(무제한 급이) 증체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주 육성시까지의 사료급여량은 1수당 7kg 정도로 타사료(8kg 이상) 보다 10~20%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생추를 550원에 입추시켜 70일 후에는 1,700~1,800원선에 출하하고 있다.

사료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이 때에 질 좋은 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에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효율성 높은 사료의 연구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어제와 오늘

이오형사장이 양계를 시작한 것은 체대 직후, 그러니까 20년도 넘는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의 우리 양계산업은 불모지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이미 남보다 앞선 기술로 사업에 손을 댔다. 그러나 시운이 따르지 않았던지 그의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았단다. 그간 양돈과 양계를 번갈아 해오면서 무수한 희비가 엇갈렸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최근들어 경영문제와 경영외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성실성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술외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 4 단 중추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1975년 그가 처음으로 중추사육을 시작했으나 경기가 좋지않아 중단했다가 3년전에 다시 손을 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의 풍부한 사양기술과 오랜 경험에 비해 농장규모는 작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친다.

아뭏든 현재 그는 기장도 3년간 계속 해오고 있고 좀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얻기 위해 각종 잡지와 서적을 구독하는 등 열의가 대단하다.

과잉생산이 문제

북부인의 손길이 1차산업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얼마전 송아지값이 금값으로 폭등하자 ‘福’자 붙은 여인네의 손길들이 왔다갔다 했다는 말도 있다. 양계업이야 그럴만한 대상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투기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요즘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자 사육상 깊은 관심만 기울인다면 별 애로점은 없다고 말하는 이사장. (그는 야간에 연탄불만 도맡아 가는 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을만큼 열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녘에는 절대 불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근래에는 나아진 것 같지만 유통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자 모두가 다소의 희생을 감소하고라도 생산조절에 참여해야만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은 매주 양계업자 동호인모임에 참가하여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三正」의 의미

그는 기자가 묻기전에 「三正」의 의미를 일러 준다.

첫째 他人에 정직하고

둘째 事業에 정직하며

셋째 自己自身에 정직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오형사장의 경건한 자세앞에 기자는 아까 잠시 가졌던 의문을 얼른 풀어 버렸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엄연한 사실이 땅속 어느 한구석에 박힌 古典이 되어 버리고 만 듯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신조로 삼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다. 富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양심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물러나오는 길에 이사장은 기자일행의 뒷전에다 한마디를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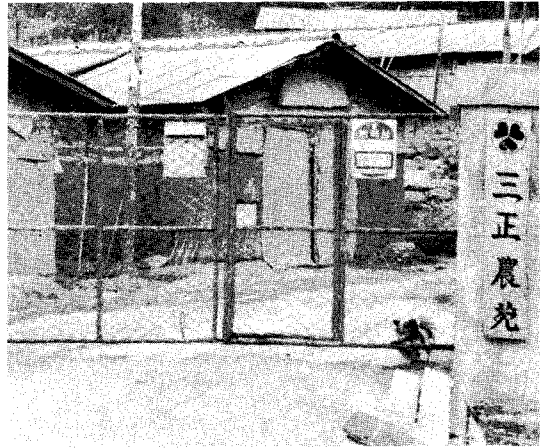
「三正을 다한 후에는, 나아가 神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지요」

중추사육은 꼭 필요

산업혁명 이후 일반산업은 급속히 발전, 생산성향상을 위해 분업화가 되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왔다. 더우기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D-RAM 등이 개발되어 새로운 용어를 수용하기에 바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양계산업은 어떠한가. 언제까지나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화의 필요성은 우리의 양계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릴 때 잘 자라야 커서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과 같이 산란계의 산란능력은 곧 육성계의 능력에 직결된다. 닭의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다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육성의 중요성은 바로 그 능

▽삼정농원 정문 모습



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있으며, 이로부터 중추사육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오형사장의 말처럼 전문사육화가 될 경우 산란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반 양계장에서 처럼 많은 돈을 들여 육추사를 지어 일년에 한두번 육추하고 비워두는 손실과, 아니면 성계사와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경제비의 부담, 질병의 피해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전문사육을 함으로써 고도의 기술에 의해 사료효율이 향상된다는 점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사료원료비의 절감등 사료문제가 심각한 우리 실정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나아가서는 전문기술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추 전문사육은 필요하다 하겠다.

이밖에도 채란업의 전·기업화로 대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중추의 전문사육은 채란 양계사업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차에 몸을 실으면서 삼정농원과 이오형사장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오늘 일기장에는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도……

「그분도 마음속엔 가진 것이 많습니다. 50년 대, 그야말로 황폐했던 시절 이미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양계에 뛰어들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그는 기술을 맡고 지금은 모 기업의 총수인 L씨는 경영을 맡고서 말입니다」

P 사료 姜부소장의 귀뜸이다.